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y

이양순(Lee, Young Soon)*, 정영숙(Chong, Young Sook)**, 이기영(Lee, Ki Young)***

어머니의 정서환경은 유아에게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유능성간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정서환경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충주시의 유아교육기관 만4~6세 유아 361명과 그의 어머니 36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 유능성을 질문지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통계처리를 위해 SPSS/WIN 10.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학력과 가계 수입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성별, 연령에 따라, 또래유능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 약한-부정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변인인 자기결정과 행동억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강한-부정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정서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약한-부정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조절 능이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어머니의 정서환경에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함께 약한-부정 정서표현의 영향을 밝혔으므로,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함께 부정적 정서표현이 바람직한 형태로 부모의 정서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 유능성

* 제1저자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공동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공동저자(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lky7002@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와 같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아가 사회에 적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적응능력은 더욱 강조되어진다. 바람직한 또래 상호작용은 인지발달이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인관계 기술 습득, 탈중심화, 올바른 성역할의 발달 및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Ellis, Rogoff, & Cromer, 1981). 이러한 의미의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었으며, 그 중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주요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이현주, 2001).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에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은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어머니와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김정아 1989; 김지신, 1996; 송정, 1999; 박응임, 1998; 박주희, 2001; 양혜련, 2000; Bakeman, & Brown, 1980; Cohn, 1990)가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정서와 관련된 요인과 유아의 또래관계를 지지해 주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사회적 이해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부정적 정서 표현은 긍정적인 정서표현과는 반대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었다(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유아에게 생애 초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형성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 많은 연구들(김지선, 1985; 박정선, 1986; 서동미, 1996; 연미희, 1998; Huntsinger, Jose, & Larson, 1998; Hurlock, 1987)과도 일치되는 의견이다.

유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해 나간다. 어머니는 유아가 최초로 정서적 교류를 시도하는 정서표현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서표현은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의사소통하는 과정인 자기노출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실현과 자기성장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표현성은 오랫동안 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나(Allport, & Veron, 1993) 최근에 와서야 개인이 정서와 정서표현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맥락으로써 가족의 개념을 고려하게 되었다. 가족 내에서의 정서표현은 정서조절 및 표출 규칙에 대한 학습상황을 제공한다. 가족의 정서표현성이 높고,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규제는 유아의 정서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지만(Jones, Abbey, & Cumberland, 1998), 가족의 정서표현성이 낮고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에게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유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내면화된 불안이나 고통반응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Buck, 1984). 이처럼 가족 내의 긍정적인 정서환경은 정서에 대한 지식, 긍정적 감정 및 형제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지만, 부정적인 정서환경은 정서에 대한 지식 및 형제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었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Dunn, Brown, & Beardsall, 1991).

유아는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상황적 요구와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고, 현재의 혐오적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조절능력이라고 한다(이경임, 1996). 자기조절능력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환경적 영향에 의해 부분적으로 학습된다고 한다. 부모의 조절방략을 모방하거나 부모가 제공한 정서적 안정에 의해 조절처리가 동기화된다고 한다(Mischel, 1981).

Kopp(1982)는 유아의 자기조절에 관한 문제는 양육자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유아가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혼자 할 경우는 일부분만 성취하나 양육자와 함께하면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양육자에 의해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습이론을 통해서도 자기조절의 발달은 모델이나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Bandura, 1977).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유아들이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또래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 공격적 상호작용 능력, 정서지능,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호정, 2002; 박혜경, 2002; 이현민, 1998; 최미선, 2001; Eisenberg, & McNally, 199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만약 유아가 그들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유아는 중요한 사회적 발달과제인 또래관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관련하여 볼 때, 유아의 발달에 기초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서환경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상관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최근에 양육태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관련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유능성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밝힘으로서 유아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정서환경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유능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 1-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차이가 있는가?
- 1-2.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 1-3.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2-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2-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2-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주시에 있는 7개의 유치원을 선정하여 만 4~6세 유아 361명과 그의 어머니 36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대한 질문지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질문지는 어머니가 직접 평가하였고,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질문지는 대상 아동의 담임교사가 평가하였다. 유아의 담임교사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평가한 것은 유아의 또래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부모보다 많고, 유아의 발달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부모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또래유능성을 평정하는 사회적 측정법, 교사나 부모에 의한 성인 평가방법, 행동관찰 등에서 교사 평정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Connolly와 Doley(1981) 연구에서 취학전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아의 사회적 측정법과 교사에 의한 인기도 측정, 교사에 의한 또래유능성을 평가해 본 결과 교사의 평가가 어머니의 평가보다 더 타당하다는 주장에 근거하였다.

예비조사는 2004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충주시 유치원 한곳을 선정하여 만 5세반 유아 40명과 그들의 어머니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2004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질문지와 어머니가 체크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담임교사가 체크하는 또래 유능성 질문지를 각각 437 부씩을 배부하여 384부(88.3%)를 회수하였는데 그 중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361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알아보기 위해 Halberstadt(1986)의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FEQ)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우수경(200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진술로서, 긍정-부정 차원과 강한-약한 차원의 정서표현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전체 40문항이었다. 문항별 반응 양식은 Likert식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6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하여 평정하였다.

우수경(2002)은 Halberstadt(1986)의 요인분석에서는 10개씩으로 구성된 강한-긍정, 약한-긍정, 강한-부정, 약한-부정의 4개 요인으로 보고 되었으나,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진 강한-긍정과 약한-긍정을 긍정요인으로 묶어서 3개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들(Eisenberg et al., 1992 & Switzer, 1992; Garner, Jones, & Miner, 1994)에 비추어볼 때 3개 변인구성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된 질문지는 긍정적 정서표현성, 약한-부정적 표현성, 강한-부정적 정서표현성으로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요인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18개 문항으로, 애정, 감사, 호의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문항이다. 둘째요인 '약한-부정적 정서표현성'은 5개 문항으로 슬픔, 당황스러움, 실망감 등과 같이 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으로 이루어졌으며, 셋째요인 '강한-부정적 정서표현성'은 9개 문항으로 분노, 비난, 멸시와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의 표현으로 이루어졌다(우수경, 2002).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성 .90, 강한-부정 정서표현성 .85, 약한 부정 정서표현성 .67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란(2003)이 개발한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 요인에 4개 하위구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제 1구성요인은 '자기평가'와 '자기결정'의 2개 하위구성요인을 포함하여 '자기점검'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제 2구성요인은 '행동억제'와 '정서성' 2개 하위 구성요인을 포함하여 '자기통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평가'는 5개 문항, '자기결정'은 9개 문항, '정서성'은 7개 문항, '행동억제'는 10개 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평가 .75, 자기결정 .72, 행동억제 .75, 정서성 .65로 나타났다.

3)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하위 영역인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영역으로 하위 요인별 5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교성'이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친사회성'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셋째, '주도성'은 또래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교사로 하여금 대상 유아의 특성을 각 문항 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25점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하위 영역별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래관계가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사교성 .92, 친사회성 .89, 주도성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주요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또래유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F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LSD검증을 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자기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유아는 남아가 50.1%, 여아가 49.9%이었고, 유아의 연령은 만 4세가 13.9%, 만 5세가 47.4%, 만 6세 이상이 38.8%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아의 형제 자매수는 2명이 69.3%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3명 이상이 24.4%, 1명인 경우가 6.4%이었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막내가 49.9%로 가장 많았으며, 외동이를 포함한 첫째가 35.7%, 중간인 경우가 14.4% 순이었다. 대상유아의 85.6%가 첫째이거나 막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56%였으며, 36세 이상이 44%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비취업이 53.5%이었고, 전일제 취업이 36.6%, 시간제 취업이 10.0%이었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46.6%로 거의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학력 이하가 전체의 66.2%였으며,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가 33.8%이었다. 가족의 월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42.4%,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4.6%,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1.4%로 가장 많았고, 확대가족의 경우가 14.4%, 한부모 가족도 4.2%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 인	빈도(%)	변 인	빈도(%)
유아 성		취업 유무	
남	181(50.1)	전일제취업	132(36.6)
여	180(49.9)	시간제취업	36(10.0)
계	361(100.0)	비취업	193(53.5)
유아 연령		계	361(100.0)
만 4세	50(13.9)	어머니 학력	
만 5세	171(47.4)	고졸이하	239(66.2)
만 6세이상	140(38.8)	2년제대졸 이상	122(33.8)
계	361(100.0)	계	361(100.0)
자녀수		월수입	
1명	23(6.4)	200만원미만	153(42.4)
2명	250(69.3)	200~300만원미만	125(34.6)
3명이상	88(24.4)	300만원이상	83(23.0)
계	361(100.0)	계	361(100.0)
출생 순위		가족형태	
첫째(외동이포함)	129(35.7)	핵가족	294(81.4)
중간	52(14.4)	확대가족	52(14.4)
막내	180(49.9)	한부모가족	15(4.2)
계	361(100.0)	계	361(100.0)
어머니 연령			
35세이하	202(56.0)		
36세이상	159(44.0)		
계	361(100.0)		

2. 사회인구학적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 유능성

본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계의 수입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유아의 성, 연령, 가족형태로 나타났고,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유아의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배경별 집단간 차이는 표 2, 3, 4에 나타나 있다.

1)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N = 361)

변 인	빈도	긍정적인 정서표현 M(SD)	약한-부정 정서표현성 M(SD)	강한-부정 정서표현성 M(SD)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239	4.64(.63)	3.83(.88)	2.96(.86)
2년대졸 이상	122	4.69(.57)	3.81(.71)	3.28(.78)
<i>t</i>		.45	7.87	1.79***
가계수입				
200만원 이하	153	4.56(.66) _a	3.85(.85)	3.08(.87)
200~300만원	125	4.76(.59) _b	3.77(.81)	3.00(.87)
300만원 이상	83	4.67(.49) _{ab}	3.84(.83)	3.15(.78)
<i>F</i>		4.02*	.36	.87

주. 평균의 다른 아래첨자는 $p < .05$, $p < .001$ 일 때 의의가 다르다.

* $p < .05$. *** $p < .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강한-부정 정서표현은 어머니의 학력($t=1.79$, $p < .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강한-부정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학력

이 고졸학력 이하인 경우가 2년제 대학 이상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강한-부정 정서표현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과 긍정적인 정서 표현성과 약한-부정 정서표현성과는 차이가 없었다. 가계수입($F=4.02, p < .05$)에 따라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가계수입이 200~300만원인 집단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성, 연령, 자녀수,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취업유무,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의 성과 연령, 가족형태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의 성은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자기결정($t=.54, p < .05$)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아는 남아보다 자기결정 점수가 더 높았다. 자기평가, 행동억제, 정서성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N = 361)

변인	빈도	자기점검		자기통제	
		자기평가 M(SD)	자기결정 M(SD)	행동억제 M(SD)	정서성 M(SD)
유아 성					
남	181	3.85(.64)	3.29(.65)	3.47(.55)	2.80(.59)
여	180	3.96(.66)	3.42(.60)	3.58(.61)	2.81(.65)
t		.53	.54*	4.07	.95
유아 연령					
만4세	50	3.86(.70)	3.08(.63) _a	3.37(.60) _a	2.86(.68)
만5세	171	3.84(.67)	3.27(.63) _a	3.45(.59) _a	2.80(.62)
만6세 이상	140	4.00(.60)	3.55(.58) _b	3.66(.54) _b	2.79(.60)
F		2.59	13.53***	6.77***	.24

주. 평균의 다른 아래첨자는 $p < .001$ 일 때 의의가 다르다.

* $p < .05$. *** $p < .00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서는 하위영역인 자기결정($F=13.53, p < .001$)과 행동억제($F=6.77, p < .001$)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결정과 행동억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6세 유아가 만 4세, 5세 유아보다 자기결정과 행동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와 정서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유아의 또래유능성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유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유아 연령에 따라 또래유능성 하위요인인 사교성($F=3.35, p < .05$)과 친사회성($F=6.43, p < .01$)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주도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만 6세 이상의 유아가 만 4, 5세 유아보다 사교성과 친사회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유아의 또래유능성(N = 361)

유아의 연령	빈도	사교성 M(SD)	친사회성 M(SD)	주도성 M(SD)
만 4세	50	3.48(.45) _{ab}	3.28(.55) _a	3.30(.56)
만 5세	171	3.45(.52) _a	3.35(.52) _a	3.34(.51)
만 6세이상	140	3.60(.54) _b	3.52(.47) _b	3.45(.51)
F		3.35*	6.43**	2.53

주. 평균의 다른 아래첨자는 $p < .05, p < .01$ 일 때 의의가 다르다.

* $p < .05$. ** $p < .01$.

3.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상관관계는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중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인 자기평가($r=.42, p < .01$), 자기결정($r=.41, p < .01$), 행동억제($r=.35, p < .01$)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성($r=-.14, p < .01$)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부정 정서표현성은 자기결정($r=.17, p < .01$)과 행동억제($r=.12, p < .05$)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평가와 정서성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강한-부정 정서표현성은 행동억제($r=-.19, p < .01$)와 부적 상관관계를, 정서성($r=.19, p < .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평가와 자기결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평가 능력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정적 상관이, 유아의 자기결정 능력은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약한-부정 정서표현성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유아의 행동억제 능력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약한-부정 정서표현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반면 강한-부정 정서표현성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서성은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는 부적 상관을 강한-부정 정서표현성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5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상관관계

정서표현성	자기조절능력			
	자기점검		자기통제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긍정적인 정서표현성	.421**	.414**	.347**	-.137**
약한-부정 정서표현성	.101	.165**	.118*	.024
강한-부정 정서표현성	-.064	-.038	-.192**	.186**

* $p < .05$. ** $p < .01$.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중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약한-부정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하위변인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은 사교성($r=.33, p < .01$), 친사회성($r=.39, p < .01$), 주도성($r=.33, p < .01$)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약한-부정 정서표현성 또한 사교성($r=.13, p < .05$), 친사회성($r=.14, p < .01$), 주도성($r=.13, p < .05$)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약한-부정적인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한-부정 정서표현성은 또래유능성 하위변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상관관계

정서표현성	또래유능성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긍정적인 정서표현성	.329**	.393**	.334**
약한-부정 정서표현성	.128*	.136**	.128*
강한-부정 정서표현성	.009	-.007	-.068

* $p < .05$. ** $p < .01$.

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것과 같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조절능력 하위변인 4개중 정서성을 제외한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교성과는 자기평가($r=.60, p < .01$), 자기결정($r=.52, p < .01$), 행동억제($r=.55, p < .01$)와 친사회성과는 자기평가($r=.61, p < .01$), 자기결정($r=.67, p < .01$), 행동억제($r=.47, p < .01$), 주도성과는 자기평가($r=.71, p < .01$), 자기결정($r=.59, p < .01$), 행동억제($r=.48, p < .01$)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상관관계

자기조절능력	또래유능성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자기평가	.602**	.612**	.712**
자기결정	.515**	.673**	.588**
행동억제	.547**	.465**	.482**
정서성	.018	-.062	.051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측면의 하나로 정서표현성,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초점을 두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도와 줄 수 있는 부모의 바람직한 정서환경을 만들도록 교육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이서 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학력과 가계수입과 상관이 있었는데, 분노, 비난, 멸시와 같은 강한-부정 정서표현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 고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학력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가 강한-부정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인식이 높은 것(윤기영, 1998)과 관련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분명히 하고 자녀를 쉽게 통제하고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의 부모들이 강한-부정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은 학력이 높은 집단의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으로 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스스로 사전계획을 준비하고, 문제해결전략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결정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김옥희(2003), 이현민(1998), Eisenberg(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손경화(2001) 연구에서는 주의조절과 행동조절로 본 자기조절능력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이현민(199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본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연령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박주희(2001), 손승희(2002), 임연진(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유능성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놀이규칙을 좀 더 이해하고 또래와의 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성별과 부모변인에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손승희(2002)와 박주희(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손승희(2002) 연구에서는 출생순위

와 또래유능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희(2001)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에서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연구결과에 대하여 송명자(1995)는 발달의 성차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고찰하면서 4~5세 경부터 여아가 타인에 대해 더 공감적이고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표현성이 높은 경향이 성인기 까지 지속되며, 이러한 성차는 출생 직후부터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등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언급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을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합한 특성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이 사회화 과정에 반영된 결과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평정자인 교사가 성 고정관념이 평정에 반영되어 남아보다 여아를 더 친사회적이라고 평가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비추어 성차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가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애정, 감사, 호의 등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슬픔, 당황스러움, 실망감 등의 약한-부정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스스로 사전계획을 하고 문제해결전략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 통제에 순응하고,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해서 행동을 지연하는 행동억제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ummings와 Davies(1996), Dix(1991), Garner와 Power(1996), Halberstadt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련된 연구(안미경, 1997; 이수연, 1985)가 주었던 상황에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과의 정적 관계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김호정(2001)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은 유아로 하여금 어머니의 조절 전략을 모방함으로써 혹은 자신의 주의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조절능력을 갖게 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성은 아동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통제력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고 논의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결국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감사와 호의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유아는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에 순응하고 하고 싶은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하고 좋은 보상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할수록 또래 집단과 잘 순응하고, 여러 유아들과 잘 어울리며, 다른 유아들을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고,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자신의 의견도 효과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강한-부정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행동억제 수준과 자기억제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애정, 감사, 호의 등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슬픔, 당황스러움, 실망감 등의 약한-부정 정서표현성이 높아질수록 또래 유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분노, 비난, 멸시와 같은 강한-부정 정서표현성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우수경(2002)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약한-부정 정서표현성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한-부정 정서표현성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수경(2002) 연구의 사회적 능력은 또래유능성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애정, 감사, 호의 등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정서표현뿐만 아니라 슬픔, 당황스러움, 실망감 등의 강하지 않은 약한-부정 정서표현이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유아 발달에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따라 유아 발달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옥희(2003)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있는 유아가 유능성과 지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연구가 찾아보기 힘들어 비교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경희(1997)도 사회성과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을 예견하고 있으므로 유아기 자기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연구대상을 다양하게 하여 진행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분노, 비난, 멸시와 같은 강한-부정 정서표현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강한-부정 정서표현성이 나타난 결과는 의미있는 결과로 바람직한 정서표현을 위한 부모교육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가계수입은 높은 집단의 어머니가 낮은 집단보다 애정, 감사, 호의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결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 6세 유아가 만 4, 5세 유아보다 자기결정과 행동억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만 6세 이상의 유아집단이 만 4, 5세 유아보다 사교성

과 친사회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도성은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가 애정, 감사, 호의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인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는 높아지고, 기질적인 측면의 정서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슬픔, 당황스러움, 실망감 등의 약한-부정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자기결정과 행동억제가 높아져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이지만 유아 발달에 도움을 주는 표현방법이었다. 하지만 분노, 비난, 멸시와 같은 강한-부정 정서표현은 많아질수록 행동억제가 낮아졌고, 기질적인 자기억제도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과 약한-부정적인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상관관계에서도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유능성간의 상관관계가 의미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긍정적인 정서표현성, 약한-부정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또래유능성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발달에 도움을 주는 어머니의 정서환경에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약한-부정 정서표현의 영향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결론이 부모 정서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가 분노, 비난, 멸시와 같은 강한-부정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측정방법이 어머니와 교사의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법만을 사용하여 주관적이고 편견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관찰법, 면접법 등의 방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외국척도를 번안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척도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어휘와 설명으로 구성된 척도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1997). 한국 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희. (2003).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1985).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이입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아. (198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정. (200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응임.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박정선. (198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숙도 및 인기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 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취학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5, 221-232.
- 박혜경.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미. (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경화. (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회복력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 정. (1999).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 개입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경. (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련. (200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인기도와 사회적 문제 해결 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미희.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222.
- 우수경. (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기영. (1998). 유치원아 어머니의 학부모 역할인식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임. (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 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 과제수행능력 및 개인간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연. (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민. (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1).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와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최미선. (2001). 협동학습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keman, R., & Brown, J. (1980). Early interaction: Consequences for social and mental development at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51, 437-44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s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 competence a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ummings, E. M., & Davies, P. (1996). Emotional security as a regulatory process in norm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123-139.
-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2), 242-249.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Dun, J., Brown, J., & Bre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Emotion and Social Behavior*, 14, 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 McNally, S. (1993). Socialization and mothers' and adolescents'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 171-191.
- Ellis, S., Rogoff, B., & Cromer, C. C. (1981). Age segregation in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99-407.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lberstadt, A. G., Crisp, V. W., & Eaton, K. L. (1999). Family expressiveness: A

- retrospectiv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P. Philippot, R. S. Feldman, & E. Coats(Eds). *The Social context of nonverbal behavior* (pp. 109-1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 (1998). Do parent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47-756.
- Hurlock, E. B. (1987). *Child development*(6th ed.). New York: McGraw-Hill.
- Jones, D. C., Abbey, B. B., & Cumberland, A. (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ages with family expressivenes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9*(4), 1209-1222.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Mischel, W. (1981). *Introduction to personality*(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mong mother's feeling expression,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by socio-demographic background and provide a basic material to develop the parents' education for mother's promoting emotional environment to help development of children by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among mother's feeling expression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The research objects were 361 of 4 to 6-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tool adapted by Woo Sookyong(2002) was used for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the tool of Lee Jeongran(2003) for the of self regulation and the tool of park Joohee and Lee Eunhae for the children's peer competenc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population, percentage, t-test, Cronbach α , F-test, and co-relation of LSD posteriori test.

The summary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negative expressivity was shown as mother's academic career was higher and the more positive one was appeared as family income was greater according to the background of socio-demography. Female children showed the higher self-regulation, and the self-decision and action control were greater as their age was higher. Children's peer competency was higher as they were social and friendly personality.

Second, there was the strong relationship among the mother's feeling expressivity,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y one. Mother's positive expressivity had th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y one while weak expressivity had it with self-decision, regulation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But the strong negative heartstrings' expressivity was an improper co-relation with action control and no relation with similar age competent ability. A definitive relation existed between all low level area except the emotion of self-regulation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Form the above study, it was Known that there was the relationship among

the mother's feeling expressivity,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y. In particular, there was strong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weak positive expressivity,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y. These results could be reflected to parents' heartstrings education by knowing the impact of a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and weak-negative one.

Key words :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peer competency

2006. 5. 6. 접수 : 2006. 6. 3. 채택